함즐함울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3년 주님의교회 표어

473
2023.10.8.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천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_ 창세기 12:1-2

오늘의 주요기사

2 하나님 백성의 선교
3 예장통합 총회 요약
4-11 비전트립 사역 특집
12 겨자씨이야기
12 교사일기
13 족구대회 후기
13 생명사랑 이웃사랑
14 교회사용설명서
15 십자말풀이

그 집이 왜 그런가 보니 예수를 믿더라

추석이 되면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며 나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태어나기 한 달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유언같은 말씀은 "너희들은 나중에 꼭 예수를 믿어라"라는 말씀이셨다고 합니다. '골목을 오가며 보게 된 어느 집이 단칸방에 많은 가족들이 어렵게 살아도 언제나 화목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왜 그런가 알아보니 그 집이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믿고 화목하고 즐겁게 살아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쯤 후 결국 온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은 신앙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추석가정예배지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의 말이 생각납니다. 여호수아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일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도 언제나 화목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그 가정처럼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좋게 보일 때 그것을 본 믿지 않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사용되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함즐함울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 백성의 선교④

열방에 복이 되는 백성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후손인 우리는 바로 '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 『하나님 백성의 선교』 4장 '열방에 복이 되는 백성'에서 복음, 곧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이 열방에 복 주시기를 원하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서 선교를 실천해 나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열방에 복을 전하도록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일이 하나님 자신의 구속적 축복 선교를 시행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과 관련된 언급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실제로 성경신학의 주요 주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선교를 실천하는 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이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창조주에게 반역을 시도하고, 그분의 선의를 불신하고, 그분의 권위에 불순종하며, 그분이 그들의 자유를 위해 정해 놓은 경계선을 무시하여 창조세계 안에 확립된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점차 커지는 인간의 죄에 상응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거듭해서 나타납니다. 홍수 직후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하신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의 복 아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보냄받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교만과 불안함 때문인 듯 바벨 이후 무질서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여기에서 어디로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이야기의 나머지 전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주적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선교 전체의 발사대로 삼기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인간의 악함, 나라 간의 분쟁, 그분의 피조물 전체가 망가져 신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시작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의 복은 세 번 선포됩니다.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셨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복은 한편으로는 생육함, 풍성함,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창조세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번성, 퍼져 나감, 채움, 풍성함이라는 개념은 생명을 대단히 긍정하는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 열방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으며, 또한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복을 받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의 관계적 요소는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뻗어 나갑니다. 야곱에게 내린 하나님의 복으로 라반이 풍성해졌고, 보디발은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았고 바로는 야곱으로 인해 복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복제를 합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 복이 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매우 완전하게 선교적으로 만드는 한 가지 특징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사건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시키며, 이 선택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기 위해 선택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열방에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이 퍼져 나가는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나 구원의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적 순종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복의 영역 안에 살면서 그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순종은 복을 얻거나 받을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것이 그의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요 구세주로 믿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에 포함되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확산시키는 사명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실제로 히브리어 명령형 "복이 되어라"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는 땅 끝까지 나아가 선교를 했습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선교를 위한 궁극적 의제인 열방에 복 주시는 것이 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한 것은 우리의 선교를 위한 역사적 모델인 믿음과 순종이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구원하는 믿음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희생적 순종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복이 되라"는 명령이 뜻하는 모든 것에 실제로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증명서인 것입니다.

함즐함울

예장통합
108회 총회

치유와 화해 향해 전진... 제108회 총회 성료

2023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라는 주제로 명성교회에서 개최된 제108회 총회 소식을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의 글을 전재하여 전합니다. **함즐함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총회장:김의식)가 지난 19~21일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시무)에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출 15:26, 사 53:4~5, 살전 5:23)'를 주제로 진행되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개막 전부터 총회 장소 문제로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총회는 정상적으로 개회되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총회 임원선거에서는 임원선거조례 2장 2조 1항에 의거해 107회기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가 자동승계했으며, 목사부총회장에 김영걸 목사(포항남노회 포항동부교회), 장로부총회장에 윤택진 장로(대전노회 대전제일교회)가 단독출마해 각각 박수로 추대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관련 문제에 대한 총대들의 토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총회 첫날 임원회 보고 때부터 일부 총대들은 지난 회기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헌법위원회의 해석, 이러한 모든 과정을 총괄한 임원회에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결국 재심재판국 보고시 이 107회기 재심재판국 조직을 한회기 연장해줄 것을 청원해 허락을 받았다. 재심재판의 길이 다시 열린만큼 이번 회기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총회 첫째날 공천위원회 보고에서는 일부 부서에서 목사 장로의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총회 상임 부·위원회 각 부서의 목사/장로 비율을 가능한 6대 4에 가깝게 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연구해 규칙부가 규칙개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청원해 총대들의 허락을 받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07회기 헌법개정위원회가 청원한 헌법개정안은 모두 통과됐다. 헌법개정위는 헌법 정치 제74조에 위반되어 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으로 위헌 해석을 했으나 그동안 개정되지 않았던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를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로 개정안을 보고했다.

헌법 제2편 정치 3장 교인 16조(교인의 권리)를 "세례교인(입교인)과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을 가진다. 또한 세례교인(입교인)과 아동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인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다"로 개정했다. 헌법개정위는 이 개정에 대해 헌법 정치 제14조(교인의 구분)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유아세례교인은 입교해야 18세 이상으로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지게 됨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 둘째날에는 별정직원의 연임 청원시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청원을 가능하게 한 총회 규칙부의 규칙개정 청원이 오전에 통과됐지만 당일 오후에 재론동의로 결과가 뒤집혔다.

'별도위원회'와 관련한 규칙도 신설됐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 또는 총회 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별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별도위원회는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수는 9인 이하로 한다. 별도위원은 총회 결의 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총회는 별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조항을 신설, 현실적으로 조문화 할 필요가 있었다고 규칙부는 규칙 신설 배경을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도 여느 총회에서와 같이 총회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연금재단 보고시 총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 목회자의 은퇴로 인한 연금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연금재단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자 규명 및 처벌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은 과거 부실 투자에 대해 진상을 조사 중이고 책임질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위하며 연금의 지속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연구할 것을 약속했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인터콥선교회에 대해서 기존의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유지하기로 했으며 '손원영 교수의 이단성'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예의 주시,'하마성경 정은수 집사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로 결의했다.

한편, 여전도회관 관련 문제는 제108회 임원회가 화해조정위원회와 상의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서는 부산장신대학교 천병석 목사와 영남신학대학교 유재경 목사가 박수를 받으며 신임총장으로 인준받았다.
총대들의 폐회 동의로 총회 마지막 날 예정된 오후 회무를 하지 않고 마무리 된 이번 제108회 총회는 총회 사업 부서 등 총회 석상에서 다루지 못한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표현모 기자 / 한국기독공보

비전트립 2023
베트남

하나님의 선교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2023년 베트남 비전트립팀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베트남 남부 빈롱성 지역을 기반으로 사역하시는 최화평·김사랑 선교사님을 방문하여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베트남 비전트립팀은 인솔 교역자인 윤경수 목사님과 지유철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여섯 명과 청년들(중학생 1명 포함) 여섯 명, 총14명으로 한 팀을 이뤘습니다. 출발 한 달 전부터 목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 시간을 나누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비전트립팀은 7월 31일 오전 출발하여 오후를 넘긴 시간에 호치민 공항에 내렸고 마중 나온 최화평, 야린 선교사님과 한나 선생님과의 반가운 인사 후, 다시 버스로 이동하여 저녁 무렵에 4박 6일 일정을 진행할 빈롱시에 도착하였습니다.

베트남 사역 일정은 이틀을 집짓기 사역으로, 나머지 시간은 학교와 복지센터, 그리고 동푸교회 방문과 NGO 시설 방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8월 1일은 탄득면에서 집짓기를 하였습니다. 이미 형태가 갖춰진 집에서 팀원들은 밖의 흙을 가져다 방바닥에 고루 펴서 다지는 것과 페인트를 집안과 밖에 칠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땀이 비처럼 죽죽 흘러 내렸지만 장로님부터 어린 중학생까지 묵묵히 자신의 힘을 더 보태려 애쓴 섬김의 시간이었습니다. 8월 2일 오전까지 계속된 탄득면의 집짓기 현장은 버스로 갈 수 없는 좁고 먼 시골길이라 탄득면 인민위원회가 주민들을 동원하여 오토바이를 마련하였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진 길을 왕복하며 낯선 만남이었어도 결코 낯설지 않은 듯 그들은 우리에게 등을 맡기고 우리들은 그들의 안내를 고마워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완성된 집에서 살게 될 주민들과 인사하며 선교사님의 통역으로 '주님의교회'란 말을 들었을 때는 '주님의교회'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탄득면 인민위원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고 우리는 빈롱시 안의 롱안면과 록화면에 있는 학교 두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선교사님이 미리 준비한 교과서와 문구류, 그리고 자전거를 선물하였을 땐, 후원한 성도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8월 3일 오전, 우리는 메콩강 하류에 있는 동푸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황토색의 거친 물결도 손에 닿을 듯 가깝게 출렁이던 순간을 여러 번 겪은 후 우리는 선착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밝고 맑은 세상 앞에는 방금 하나님의 손끝에서 완성된 듯한 모습의 고요한 동푸교회가 아름답게 서 있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담임 목사인 통목사님께 동푸교회의 역사를 들었고 목사님의 간절한 신앙고백을 통해 48년간 동푸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팀원들은 눈물로 눈물로 만났습니다.

오후에 껀터시로 이동하여 NGO 단체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최화평 선교사님이 진행하는 사역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피해 입은 지역을 조사하여 주민들을 위해 구제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단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베 아동 돌봄 센터'였습니다. 한국인과 결혼 후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온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두 NGO 단체를 다녀오며 우리는 겉으로만 인정하는 베트남식 기독교 상황에선 현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선교에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8월 4일 호치민 공항으로 가는 중에 우리 팀원들은 베트남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비전트립을 통해 우리는 그 땅 민족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심도 알았습니다.

김미선 집사 / 베트남팀 팀장

비전트립 후기

비전트립팀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베트남 비전트립은 제가 처음으로 가본 단기 선교였습니다.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준비해야 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야겠다 생각하고 훌쩍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떠난 비전트립은 "이것은 단기선교인가 패키지여행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모든 것이 잘 짜여져 있었고 알찼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오토바이와 버스와 가이드 분들이 대기하고 있고, 페인트와 롤러가 준비 되어 있고, 가는 데마다 과일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목사님과 선교사님께서 아침 경건회와 특강을 정말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영적으로도 계속 채워짐을 받았습니다. 이런 준비에 비해 제 노력은 너무도 작았습니다. 마음 한 켠에는 "이게 뭔가..." "이래도 되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혼란과는 달리 참 신기하게도 계속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전트립 중에도 5일 내내 비가 올 거라는 기존의 예보와는 달리 비가 별로 오지 않았고 저희가 버스나 배를 타고 이동중일 때에만 비가 와서 한번도 비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비전트립 동안에 하나님은 저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셔서 저희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간 베트남 비전트립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셔서 사역 중이셨던 베트남에 제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아픈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과, 세상 변두리에 있는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지요. 이번에 저희 비전트립팀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셨던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손길이, 마음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가 그렇게 모든 일에 서툴렀을 때도 결국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짧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양지수 / 청년부

비전트립 2023
코스타리카

2023 코스타리카 온라인 비전트립

코스타리카의 이해

1) 코스타리카의 역사적, 종교적 배경

1502년 콜럼버스의 네 번째 항해를 통해 발견된 코스타리카는 1821년에 독립할 때까지 300년이 넘게 스페인 식민지 지배를 받아 유럽문화와 종교가 들어왔고 로마 가톨릭교(47.5%), 개신교(19.8%), 여호와의 증인(1.4%), 무교(27%) 정도이다. 팬데믹이후 물질공세로 이단의 침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2) 코스타리카의 문제와 필요한 선교 사역

* 명목만 가톨릭교인들의 문제
  (도둑도 성호 긋고, 주인도 성호 그으며 산다)
* 신학훈련이 없는 목회자들의 문제
* 가정 (동거, 재혼, 삼혼 등), 성, 마약의 문제
* 인디오 지역들
* 빈민지역들 – 니카라과인과 주변국가 사람들 100만 명에 육박
* 현지 교단과 교단 교회와의 협력
* 주변 국가들과 선교적 네트워트 역할
* 팬데믹이후 교회의 현실들 : 무종교인 증가, 교인 출석 경감, 헌금 회복의 어려움, 특히 교회학교 청소년들의 감소와 새신자 등록 등 회복이 안되고 있음.

3) 사역 지역 : 도시빈민, 인디오 지역, 지방 및 섬 지역

4) 사역 분야

* 지도자 교육 : 목회자 성경공부 및 기도모임(매주), 목회자 성경읽기와 기도회 / 수련회, 인디오 지도자/리더 교육(매월), 교회학교 교사협력, 성경학교 지원
* 교회개척 및 건축 : 인디오 지역교회들과 기도처(개척 후보지) 방문 및 철야 기도모임
* 봉사구제 : 인디오 교회들 학용품 교복 지원, 성경보급 및 안경 수지침 사역, 교도소 사역 협력, 인디오 교회들 지원(성경, 말, 발전기등), 식량지원사역 협력

2023 주님의교회 코스타리카 온라인 비전트립 일정

1) 전체 참가 인원 53명

2) 대면 사전 준비모임 : 7/9 (주일) 1~4시

* 스페인어 즐겁게 배우기 : 현지 유학생에게 간단한 스페인어 회화와 스페인어로 전도와 사도신경, 찬양을 배움.
* 팀원들과 현지 전도용 찬양 영상 촬영
* 온라인 비전트립 과제 : 스페인어 사도신경 읽고 쓰기 (단톡방에 제출 41명 참여), 전도하는 방법(스페인어로 대화하기), 스페인어 찬양하기

3) 파송식 : 7/16 (주일)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파송식 참여

4) 중보기도 : 7/17 (월) ~ 8/4 (금)

* 3주 동안 담당 목사님들 (이대혁, 배윤환 목사님) 기도제목 공유하고 금상호 선교사님 사역 영상 소개 매일 단톡방에 업로드해서 현지 사역 이해에 도움

5) 온라인 비전트립 진행 : 8/5(토) 9~1시 Zoom

* 온라인 비전트립이였으나 당일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
* 선교사님의 사역 소개 : 만 28년 동안 기후, 언어, 문화가 다른 인디오 사역현장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의 수고의 헌신을 느낌.
* 선교사님과의 대화 나눔(질의, 응답) : 내년엔 현지 비전트립되기를 소망

6) 비전트립 보고회 : 8/27 (주일) 1시

최종경 집사 / 코스타리카팀

비전트립 후기

나의 2023 코스타리카 온라인 비전트립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 그날도 뜨거운 날 이였습니다. 온라인 Zoom 비대면 비전트립인데 많은 성도들이 뜨겁고 무더운 날 이른 아침부터 예배의 장소로 나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은혜로웠습니다.

4층 대회의실의 자리를 빼곡히 메워주셨고 Zoom으로도 여러 분들이 접속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미국에서까지 시차가 있음에도 접속해 주셨습니다. 스페인어로 사도신경 전체를 외워 아주 멋지게 암송해 주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목사님들과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선교사님의 사역 소개도 듣고 처음부터 마무리 할 때까지 바깥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우리들 속에 가득 넘쳐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비전트립 당일 뿐만 아니라 대면 사전 준비모임부터 중보기도하는 3주 동안 여러 가지 과제도 아주 성실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사도신경을 스페인어로 매일 써서 올려주신 성도분도 계셨습니다.

올 여름 자칫하면 더위에 지쳐 허망이 보낼 수도 있었는데 성도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의 시간을 함께 하며 선한 영향력을 듬뿍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참 소중한 기억이고 성도들이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한 하나님 나라 확장은 내년 현지 비전트립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로 계속 곳곳에서 이어져 나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최종경 집사 / 코스타리카팀

비전트립 2023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 팀은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총 8박 9일의 일정으로 윤바나바, 김은비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키르기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팀은 이종성 목사님과 신성철 안수집사님께서 팀을 인솔하셨고 그 외에 총 11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팀의 주된 사역 일정은 세 가지였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윤바나바, 김은비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하는 것과 카라콜 교회에서 진행되는 키르기스스탄 목회자 연합 수련회를 참석하는 것 그리고 카라콜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사역하시는 윤바나바, 김은비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했습니다. 태권도장, 치과를 방문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권도장과 치과에서 같이 일하는 청년, 직원들을 만날 때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선교사님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 비슈케크에서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미르교회 형제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카라콜 교회에서 진행된 키르기스스탄 현지 목회자 연합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팀은 수련회 가운데서 저녁 집회 말씀을 이종성 목사님께서 섬기셨고 팀원들은 미용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 수련회에는 키르기스스탄에 흩어져 사역하는 목사님들 가정이 참석했습니다. 총 15 목사님 가정이 참석하셨고 같이 말씀도 듣고 간증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 일정 중에는 카라콜 교회 1가정, 미르 교회 4명의 형제 자매가 세례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회 이후 저희 팀은 카라콜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4개의 조로 나누어서 성도 가정을 방문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어색한 시간이 지나고 서로 마음이 열리자 우리는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 번역 어플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짧게 외운 러시아 말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시간은 다른 언어, 환경에서 살아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전트립을 다녀온 후에도 각 조에서 만난 가정들이 저희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비슈케크에서도 키르기스스탄 각 지역의 흩어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카라콜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성수 집사 / 8교구

비전트립 후기

하나님의 선교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번 여행 가운데 제게 보여주신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카라콜 현지 교회 안의 평안함이었습니다. 카라콜 교회는 테르밀란 목사님 가정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곳을 처음 방문할 때 제게는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르밀란 목사님과 교제를 나눌 때 목사님께서 하신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 주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실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형편과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무슬림 가운데서 개종을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늘 압박을 받는 환경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실제 무슬림들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들 공동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적은 경험이지만 키르기스스탄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영적 모습은 제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르기스스탄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일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허락해 주신 교회와 그리고 함께 수고하신 팀원들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 선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김성수 집사 / 8교구

비전트립 2023
필리핀

2023 필리핀 비전트립 사역 내용

2023년도 필리핀 비전트립팀은 한시영 목사님을 포함 총 22명이다. 이미용, 워십찬양,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풍선아트, 한식나눔, 가족사진 촬영, 코피노를 위한 법률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2023년 7월 27일 새벽 2시 폭우가 내리는 필리핀 클락공항에 도착하였다. 유성훈 선교사님과 이경 선교사님이 우리를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셨는데, 당일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해서 숙소로 이동한 후 4-5시간 정도 자고 난 후 사역에 필요한 공용 짐을 정리하며 필리핀의 아침을 맞이하였다. 필리핀은 이 시기가 우기여서 아침에도 여전히 비가 내렸는데 사역하는 3일 내내 비가 계속 내릴 줄은 그 때까진 미처 몰랐다.

사역이 시작되는 첫날 아침 비전트립 오픈예배를 드리기 위해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이동한 곳은 유성훈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딜라딜라 교회였다.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딜라딜라 교회는 기존 허름한 건물을 보수하고 수리도 했지만, 출입문도, 창문도 없어 쏟아지는 비가 건물 내부, 창가에 있는 의자까지 적시고 있었다. 그럼에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고 교회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인근 딜라딜라 스포츠센터로 이동했다. 어림잡아 200여명의 현지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오지만 아이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우리가 탄 버스 근처로 달려와 인사해 주었다. 유성훈 선교사님은 딜라딜라지역 주민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양을 인도하셨고 가난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삶으로의 의지가 없는 필리핀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는 메시지도 전하셨다. 워십찬양팀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공연과 함께 사역이 시작하였다.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역주민들은 감사와 기쁨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후에 팀원들은 각 부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만났는데 작은 스티커, 풍선 하나로도 모두가 너무 즐거워하였다. 4명으로 구성된 이미용팀은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단장해 주었다.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했으나 그냥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끝낸 사람들에게 준비한 비빔밥을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참여한 분들에게 쌀을 비롯한 식료품 나눔을 하였다.

둘째 날 아침예배를 드리고 팀원들 모두 난민촌 가정에 전달할 의약품을 일사천리로 소분하고 포장하였다. 오전에는 첫째 날 했던 사역을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코피노를 위한 법률상담은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바랑가이 시청직원들의 도움으로 딜라딜라마을 30여 가정을 심방했다. 3명씩 팀을 구성하여 가정마다 준비한 영어 기도문을 읽고 축복기도를 하였다. 폭우가 계속 내려서 골목에 빗물이 넘쳤지만 아이들은 오리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고, 우리는 무릎까지 오는 물길을 헤치며 각 가정을 심방하며 축복하였다.

사역 셋째 날에도 여전히 비가 내렸고 큰 강을 건너가야 하는 아이따 마을 사역지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여, 현지 목사님인 알 목사님과 아이따 마을 입구에서 잠깐 교제하였다. 의약품과 문구류, 생필품 등을 전달하였는데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특히 항생제, 연고 등 간단한 의약품이 없어 조그만 상처도 치료하지 못한다고 했다. 마침 그 곳에서 한 소년을 만났는데 손이 빨갛게 부풀어 올라 짓물러 있었고 이 역시 간단히 약만 발랐어도 나았을 테지만 그렇지 못해 더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는 딜라딜라교회로 이동하여 교인들 대상으로 한복사진 촬영을 했다. 경복궁 배경으로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사진을 찍었는데 다양한 종류의 한복을 입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아이들이 준비한 찬양 율동으로 모두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을 찬양했고 우리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후에는 교회 리더들과 함께 삐삐띡 마을 20가정을 6개조로 나눠 방문하며 의약품과 선물을 전달하였다. 가정마다 아픈 사연을 듣고 눈물로 중보기도 했는데 이곳에서 만난 두 자매는 지금도 생각나며 기도하게 된다.

마지막 4일째 되는 날 계속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필리핀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오전에 은혜로운 주일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문화탐방을 위해 앙헬레스 시내로 나갔지만 불안한 치안과 뜨거운 햇빛 때문에 그리 오래 다니지 못했다. 숙소로 돌아와서 짐을 챙기고 클락공항으로 이동하여 4일간 함께한 선교사님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이재홍** 안수집사 / 필리핀팀 팀장

비전트립 후기

2023 필리핀 비전트립 사역 소감문

코로나사태로 현장 비전트립을 가지 못하다가 4년 만에 비전트립을 진행하게 되었다. 해외선교위원회 필리핀담당이라는 책임과, 새로운 나라에 비전트립을 가게 된다는 기대감을 함께 가지면서 비전트립을 준비하였다. 많은 분들이 필리핀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다. 2번의 전체교육과 5차례에 걸친 준비모임을 통해서 필리핀에 대한 이해와 현지에서의 사역을 미리 연습하고 기도로 준비하였다. 현지의 유성훈 선교사님과 함께 임원으로 선임된 분들이 온라인으로 대화하면서 비전트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준비와 사역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사역물품 후원에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셨고, 교회 외부의 기관과 회사에서도 의약품과 의류 등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후원해 주었다. 이 지면을 통해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기관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안사를 드리고 싶다.

오프닝예배 때 빗소리가 너무 커서 선교사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 빗소리가 혹자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로, 혹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렸다. 사역현장에서는 시청직원들이 질서유지와 안내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다. 유성훈 선교사님이 필리핀 사역을 시작한지 7년이 되었는데 선교식당과 몇 개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많은 결실이 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워십찬양팀의 찬양은 현지인들에게 큰 기쁨과 감명을 주었고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후에 이미용, 네일아트, 페이스패인팅 등 여러 사역을 동시에 또는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우리 팀원 한 명 한 명이 각자 사역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담당하셨다. 비가 와서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현지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는 모습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 비가 골목으로 넘쳐 무릎까지 차는 길을 팀원 어느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축복기도를 올려드렸다.

아무런 사건사고와 건강상의 문제없이 무사히 비전트립을 마치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각자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모든 팀원들과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한시영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유성훈 선교사님이 현지인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재홍** 안수집사 / 필리핀팀 팀장

특별 좌담

쓰레기매립장에 뿌리내리는 하나님의 선교 필리핀 몬탈반 지역 의료선교

함즐함울에서는 필리핀 몬탈반 지역에서 의료선교를 하고 돌아온 주님의교회 의료선교부 몇 분과 2023년 9월 15일 4층 대회의실에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몬탈반 지역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도시빈민 거주지역으로, 주님의교회 의료선교부는 지난 8월 26일에서 28일까지 몬탈반 모리아산 교회와 시청 보건소에서 의료선교활동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몬탈반 의료선교활동의 활동과 의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즐함울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유정식 장로(이하 '유' 라 함) 인솔을 맡았던 유정식 장로입니다.

변춘석 장로(이하 '변' 이라 함) 치과진료를 담당했던 변춘석 장로입니다.

박준명 안수집사(이하 '박' 이라 함) 재활진료를 담당했습니다. 전임 의료선교부장이었습니다.

강석구 안수집사(이하 '강' 이라 함) 회계와 행정을 맡았습니다.

이광우 안수집사(이하 '이' 라 함) 의료선교부장으로, 치과진료를 담당했습니다.

한시영 목사(이하 '한' 이라 함) 저는 의료선교부 담당 교역자입니다. 몬탈반에 같이 가셨던 분 가운데 약사로 참여하셨던 김인숙 권사님과 이정경 권사님, 그리고 심선숙 집사님은 좌담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필리핀 몬탈반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몬탈반이 필리핀 어느 지역에 있는 곳인지, 역사적으로는 어떤 유래가 있고, 인구와 상황의 특성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몬탈반 의료선교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 몬탈반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동북쪽 50km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닐라대도시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지요. 그전에는 마닐라대도시권의 가장 외곽으로 몬탈반에 인접한 파야타스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는데, 2000년에 산사태로 매립지에 거주하던 주민 232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피해를 입은 '파야타스의 비극'이후, 정부에서 이곳으로 매립지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들은 새로 마련된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플라스틱이나 고철을 골라내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서울 상암동 난지도와 같은 지역이었겠습니다. 지금은 멋진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서울 시내 쓰레기가 모두 모이는 곳이었고, 쓰레기 속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내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거주하셨었지요. 그곳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요?

변 매립지 주민들은 수십만 명이나 되지만 학교와 병원이 부족하여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모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규모가 난지도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군요. 언제 어떤 의료선교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 저희는 8월 26일 한국을 떠나 필리핀에 도착했고,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몬탈반 지역에 있는 모리아산 교회와 시청 보건소에서 몬탈반 지역 빈곤층에 대한 치과 및 기본 진료와 어린이 심장병 환자를 위한 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틀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현지 환자가 많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진료하신 환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강 워낙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이어서, 저희가 진료한다는 소문을 듣고 인근 주민들이 몰려들어 줄을 서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희 통계로는 발치 환자 72명을 포함해 치과 진료를 받은 분이 94명, 재활의학 진료를 받은 분이 110명, 소아심장과의 진단을 받은 어린이가 73명이었습니다. 이 밖에 현지 보건소 일반의와 간호사의 진료를 77명이 받았습니다. 의료선교 활동에 참여하신 약사 두 분의 도움으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약품의 처방과 조제도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약사님이 안 가셨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틀 동안 3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셨네요. 단 이틀간의 의료선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과진료뿐 아니라 심장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되도록 수술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어떤 의료선교 활동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변 진찰한 어린이 가운데 수술이 필요하지만 경증인 경우는 캄보디아 헤브론의료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캄보디아 헤브론의료원은 한국의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 운영하는 병원으로, 2017년부터 선천성심질환 수술 아동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몬탈반 의료선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의료진 사정으로, 이번에 확인된 5명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은 한국으로 데려와 수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방문을 포함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장기적으로는 몬탈반 지역 주민들의 보건과 위생, 정신건강, 스포츠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선교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의교회 의료선교부에서는 우선 몬탈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 진료와 어린이 심장병 수술 지원 등 의료선교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후천성 심장병 환자 관리 등의 의료선교 활동에 대하여 세계소아심장네트워트와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바쁘고 힘든 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의료선교는 교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비전트립과는 다른 독립된 선교 활동이지요? 어떤 계기로 이번 의료선교 활동을 하시게 되었는지요?

박 이번 몬탈반 의료선교활동은 필리핀 몬탈반 지역에서 어린이와 빈민층을 위한 구제 선교사역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칠드런스퓨처, 사단법인 세계소아심장네트워크, 사단법인 기아대책과의 협의와 합력 요청, 그리고 몬탈반 시장과 보건국장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몬탈반 지역은 사단법인 기아대책이 2010년부터 6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영양 보급, 의약품 제공, 장학금 지급 등의 구호활동과 어린이계발프로그램을 펼쳤던 곳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기아대책이 이 지역의 구호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2022년부터 칠드런스퓨처에서 단계적으로 이 지역의 구호활동과 어린이계발프로그램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몬탈반 외국인학교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어린이들에 대한 중식 제공과 학용품 보조, 세계심장네트워크 및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어린이 심장병 환자의 진료와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의 의료선교부는 그 가운데 현지 의료선교 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올해 2월 경 논의가 시작되어 청소년소아과, 가정 및 재활의학과, 치과 전문의가 자원했으며,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이 파견하는 3명의 의료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선교사이며 기독교선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인로 선교사가 현지의 여러 기관과의 협력과 연락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환자와 같은 사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첫날 진료를 한 장소인 모리아산 교회의 스태프 한 분을 진료했는데, 치아가 아예 없는 상태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틀니를 해드리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필리핀 몬탈반 지역은 어느 한 계층이나 세대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주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일상을 영유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의료선교 외에 필리핀 몬탈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선교나 지원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있는지요?

유 몬탈반 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단법인 기아대책에서 어린이계발프로그램과 구호활동이 이루어져 왔던 곳입니다. 주민들은 마리키나강 유역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매년 우기에 10여 차례 반복되는 태풍과 홍수로 주민들의 거주지가 물에 잠기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홍수나 태풍이 왔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겸 마을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몬탈반 학교 홍수피해 보수와 장학금 지급과 같은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으며, 축구교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은 현지 선교사인 이인로 선교사와의 협력으로 칠드런스퓨처와 관련 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몬탈반 지역 주민들의 보건과 위생, 정신건강, 스포츠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선교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따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활동 가운데, 주님의교회 의료선교부에서는 우선 몬탈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 진료와 어린이심장병 수술 지원 등 의료선교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강 이번 의료선교 활동은 모두 자비량과 협력 기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웃음) 참여하신 의료진의 항공료도 자비부담으로 했으며, 필리핀 현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칠드런스퓨처에서 부담했습니다.

바쁜 일정을 내어 주신데다가 비용도 자비로 부담하셨으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야말로 교회에서 펼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의 최전선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되는 어린이의 경우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지요?

박 사실, 현지 어린이들을 한국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하는 일이 참 복잡합니다. 수술을 받게 되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여권도 만들어야 하고, 비자도 받아야 합니다. 빈민가 주민이다 보니 필리핀 안에서도 행정적으로 도와드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현지 이인로 선교사의 협력을 통해 몬탈반 시청, 사단법인 기아대책 필리핀지사에서 돕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와 보호자의 왕복 항공료와 입원비, 수술비 등의 모든 비용은 칠드런스퓨처에서 담당하기로 했고, 수술할 병원을 섭외하고 시행하는 일은 세계소아심장네트워크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올 어린이들은 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단원종합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했으며 되도록 올해 안에 마칠 예정입니다.

주님의교회 안에도 몬탈반 사역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수술하게 되는 어린이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헌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지원이나 봉사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관심이 있는 주님의교회 구성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한 사소하지만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와 보호자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안에서 숙박과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들은 주님의교회에서 담당하려 합니다. 그러면 숙소, 운전 등을 지원해 주실 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이 대개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공용어인 타갈로그어 통역도 필요하지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 분들을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동역자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연락은 저 한시영 목사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강역을 넓히는 몬탈반 선교 활동에 주님의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비전트립 2023
몬탈반 청소년숲

한국 너머, 호흡하는 10대 그리스도인

주님의교회 청소년들이 2023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 몬탈반 지역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와나 트렉(중학생), 어와나 저니(고등학생) 학생 27명을 중심으로 각 중등부, 고등부 대표 권사, 선생님, 교역자, 그리고 김은성 장로님을 포함한 11명이 함께 팀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청소년숲 수련회 시리즈인 10대 그리스도인'을 이어서 해외 선교편인 '한국 너머, 호흡하는 10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선교를 위해 6월부터 8월 출발 당일까지 매주 정기 모임을 가지며 여행자가 아닌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공부하며, 각자의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현지 일정은 4박 5일이었지만, 가는 날과 오는 날은 이동시간으로만 보냈습니다. 주어진 3일 동안에 현지 필리핀 중학생, 고등학생들 61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청년교사 20명과 함께 연합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월요일은 '환대'라는 주제로 필리핀 친구들을 위하여 저희 한국 학생들이 진행자가 되어 실내 코너학습과 실외 야시장을 운영했습니다. 화요일은 '연합'이라는 주제로 한국 학생들과 필리핀 학생들이 같은 조를 이루어 연합 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수요일은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현지에 있던 쓰레기산 근처로 올라가 함께 피딩 사역을 나눴습니다. 쓰레기산에서 내려와서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모리아산 교회 성도님들 20가정을 방문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수요예배 때에 교회와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연합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4박 5일을 위해 준비한 시간들과 선교를 다녀 온 후에 진행한 부서 연합 보고예배와 은혜 나눔 시간들을 생각하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청소년 선교팀은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과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진실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모습, 서로 다른 존재 안에서 임하신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믿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백양선 전도사 / 청소년숲

시간	8/6(주일)	8/7(월)	8/8(화)	8/9(수)	8/10(목)
7:00-7:30	★	기상	기상	기상	아침 식사 및 숙소정리
7:30-8:00		아침 경건회	아침 경건회	아침 경건회	
8:00-9:00		아침 식사	아침 식사	아침 식사	아날라 공항 출발
9:00-10:00	주일예배	학교 탐방 및 선교사님 만남	운동회 준비	피딩 사역 (마을, 산)	체크인
10:00-11:00		코너학습 및 부스 준비	운동회 오프닝		
11:00-12:00	점심식사				
12:00-13:00	개인정비	점심식사	점심식사(연합)	점심식사(연합)	
13:00-14:00	라스트 점체크	부스 준비	실내 운동회 (조별활동)	교회성도 가정방문	귀국 *오후 12시 5분 ~ 오후 4시 55분
14:00-15:00	부모님과 예배 (다목적관 5층)	웰컴 및 실내 사역			
15:00-16:00	공항으로 출발		야외 운동회 (연합 활동)	저녁 예배 준비	
16:00-17:00		실외 부스 사역			
17:00-18:00	체크인 및 저녁식사	정리	정리	저녁식사(연합)	교회서 귀가
18:0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전체 리허설	★
19:00-20:00	출국	다음 날 준비	다음 날 준비	연합 예배	
20:00-21:00	*오후 7시 15분 ~ 오후 10시 35분	전체 모임 및 기도회	전체 모임 및 기도회	퇴정리	
21:00-22:00	*모리아 교회로 버스 이동 약 2H	세면 및 취침	세면 및 취침	전체 모임 및 기도회	
22:00-23:00				세면 및 취침	

비전트립 후기

선교지에서의 깨달음

사람들을 대할 때 저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 마지막 모임 때 임경순 목사님께서 나보다 못 살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가기보다는 그들과 교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필리핀 사람들을 보며 그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키를 보며 비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인 치고 키가 좀 작았던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제 키를 가지고 놀리는 일을 많이 당해서 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과 농구 시합을 하며 제가 비교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과 농구 시합을 하기 위해 서로 마주보고 섰을 때 저는 한국 팀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팀이 더 키가 크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 반면 필리핀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거나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키도 더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농구 시합은 한국 팀이 필리핀 팀에게 2:0으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를 할 때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해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때의 당당함이 스포츠의 승부를 좌우하는데 이 자신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필리핀 사람들이 경기에서 이긴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시험 점수와 외모를 비교하며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 시험 점수와 키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있던 내게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의 키와 신발에 상관없이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하며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이 결정되는데 자기 존재를 귀히 여기는 필리핀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정세은 / 중등부, 어와나트렉

비전트립 2023
몬탈반 청소년숲

작은 선교사, 놀라운 청소년의 이야기

처음으로 만나게 될 필리핀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실내부스 사역을 준비하러 갔다. 그동안 은우, 서은이, 다은이와 한 조를 이루며 함께 고민하면서 연습한 것을 발휘할 시간이 온 것이다. 교실에 들어가 준비를 다하고 나니, 필리핀 친구들이 한 조씩 왔다. 처음에 영어 문장으로 쭉 설명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가 준비한 실내부스를 재미있게 즐겨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저절로 기뻐졌다. 필리핀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내 안에서 교차했다. 그동안 필리핀에 오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필리핀 친구들의 작별인사에 담긴 밝은 미소와 함께 끝이 났다는 사실에 더 눈물이 난 것 같다. 숙소에 돌아가 눈을 감고 잠들기 전에 기도했다. "하나님 필리핀 친구들의 밝은 미소를 잊지 않고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강주영 / 고등부, 어와나 저니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 몬탈반 지역으로 해외선교를 다녀왔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만을 위한 해외 선교를 가는 것이라고 들었다. 이 모임에 나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청소년 시기에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서 신청했었다. 하지만 친구와의 여행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관광도 조금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신청을 했었다. 준비 모임을 여러 번 하면서 깨달았다. 여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해외에서 선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안지영 / 고등부, 어와나 저니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가난한 게 무엇인 줄 알았고, 한 시도 행복하지 않은 저를, 모든 것이 넘쳐흐르는데 만족하지 못하여 미련하게 다른 것을 갉아먹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좋습니다.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난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스쳐야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앞으로 행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미련하게 행동할 것도 알았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제 세상이 좁다고 느꼈으니까요. 정확하게 머리 위로 부는 바람이 감사하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 / 고등부, 어와나 저니

4박 5일 간의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며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필리핀 아주머니가 여행 왔냐고 물었을 때 '나는 교회에서 왔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왔다' 라고 말할 수 있어 뿌듯했다. 이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또한 이 비전트립을 준비해주신 선생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께 감사드린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도사님들의 밝은 얼굴은 지금도 감사하다.

양현준 / 중등부, 어와나 트렉

필리핀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순간은 쓰레기 산을 방문했던 순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고, 또 즐겁게 찬양하고 해맑게 웃는 모습이 정말 한국에서의 아이들보다도 좋아 보였습니다. 방문한 저희를 미소로 맞아주시고, 저희가 빵과 계란을 나눠 드릴 때도 좋아해 주셨지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선교다운 선교를 하고나니 비로소 그곳에 갔던 진짜 이유와 선교를 하는 목적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중요한 것은 사회가 우선시 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음에 갈 기회가 온다면 또 갈 것이고, 누군가 선교에 갈지 말지를 고민하면 무조건 가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선교에 함께해준 친구들,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해준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 깊은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좌호경 / 중등부, 어와나 트렉

나는 이 비전트립이 나에게 의미 있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다. 정말로 내가 필리핀에 왔다고 느꼈던 순간은 첫째 날 실내부스 사역 할 때부터였다. 수많은 필리핀 친구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는 영어로 설명해주는데 힘들어서 죽을 맛이었다. 그런데 끝마치고 나니 왠지 모를 뿌듯함과 재미가 내 가슴속에 피어났다. 나는 이 기분을 원동력 삼아서 실외부스까지 만족스럽게 끝냈다. 이제야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이 기대되었다. ..... 정말로 감사했던 것은 마지막 전날 밤 저녁예배라고 할 수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다함께 찬양을 신나게 부르며 즐기는데 행복해서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 예배가 끝나고 필리핀 친구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들이 생각나고 또 보고 싶다.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겠다.

이주형 / 중등부, 어와나 트렉

겨자씨이야기
7교구

세 겹 줄 겨자씨를 소망하는 7교구의 7-16 선한 이웃 겨자씨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7교구 선한이웃 겨자씨는 40대 후반과 50대 부부로 이루어졌으며 늘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에 대한 공통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영육 간에 강건했던 저희 겨자씨에 몇 년 전부터 암이 찾아와 두 분이나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 중보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 주신 얘기는 역시 주님의교회 집사님다웠습니다. 투병 중에도 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얘기하셨고 저와 겨자씨 식구들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전화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고 두 분은 현재 예배만 드리고 계시지만 곧 전에 하시던 봉사를 하시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던 겨자씨 모임이 올해 교회에서 저까지 네 가정이 모였고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힘차게 찬송을 부르는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올해도 저희 겨자씨에 부어주실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3일 김경숙 집사님한테 홍인화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떨렸고 두 집사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밤을 보냈고 다음 날 5층 교회 기도실에 처음으로 가서 부르짖으며 홍 집사님 살려달라고 온전하게 고쳐 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작은 딸의 "엄마~ 우리 아빠가 쓰러지신 것도 아닌데..."라는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겨자씨 식구야. 식구라구"라고 외쳤고 정말 동생이 쓰러진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가기로 했던 여행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취소해 버렸습니다. 매일 카톡이나 전화로 경숙집사님과 연락하며 경과를 들었고 우리 겨자씨 식구들과 기도했습니다. 주일에 오로지 홍인화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겨자씨 식구들이 모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홍인화 집사님이 온전히 회복하시리라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집사님을 위해 겨자씨 식구들이 모여 밥도 같이 먹고 위로의 시간을 가지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믿으며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감사, 고난이 닥쳤을 때도 감사, 저희들은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견디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의영 집사 / 7교구

교사일기
유치1부

함께 자라가는 나와 아이들

주일 아침은 늘 내 안의 '게으름'과 전쟁입니다. TV를 켜면 번개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번개맨'에게 두 아이를 맡기고 침대를 뒹굴며 푹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조금만 길어지면 어느새 시계는 9시를 향해 '번개'처럼 가고 있어서 얼른 교회 갈 채비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일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나게 하냐고 아빠 혼자 다녀오라고 찡찡거리던 아이들은 언제부터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을 외치며 설레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처음 교회 문턱을 넘었던 국민(?)학교 1학년의 제 모습을 추억하면 '디즈니 만화 동산'을 뺏어간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처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화를 보는 대신 친구를 만나러 가라고, 부지런한 생활 습관은 어려서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잔소리에 떠밀려 나왔던 내력이 이렇게 대를 이어 전통이 되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혼자서 뭣도 모르고 교회에 갔었다면 지금은 제가 두 아이를 태워서 교회에 간다는 거죠. 아빠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네요. ^^

지금 교사로 섬기는 유치1부 공간은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처음 '주님의교회'청년부에 등록하면서 혼자 교회에 와서 어떻게 적응하나 막막했던 시절에 멘토가 되어주셨던 형, 누나, 친구랑 동생들하고 청년부 모임이나 성경 공부를 같이하던 곳입니다. 어느 날에는 중창 연습을 하고, 또 어느 날에는 워십 댄스를 연습하기도 하면서 다과를 먹으며 교제를 나누던 추억이 켜켜이 쌓인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도 누구 앞에 나서는 게 쑥스럽기만 한 데, 그 시절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저기 참여하면서 무대 위를 오를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때 부장 집사님이셨던 동현수 장로님 손에 이끌려 교사를 시작한 게 2019년 하반기였으니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같이 유치부에 출석하기 시작한 첫째 딸은 벌써 초등부가 되었고, 그 빈 자리는 둘째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혼자 말고 둘이, 둘이 말고 여럿이서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간절함을 잊지 않으시고, 이런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기도를 드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보니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해주려고 합니다. 근처 실내 테마파크에 있는 웬만한 놀이기구 흉내는 다 내보는 것 같습니다. 종이접기, 색칠하기는 물론 술래잡기, 회전목마와 롤러코스터를 태워주면서, 겨울철 썰매장까지 재현하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모터로 돌아가는 놀이기구를 흉내를 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못 해"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다크 서클이 늘어지기는 하지만 못 할 일은 아니니까요. OO이, △△이, □□이가 차례대로 몸에 올라타서 움직일 때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보는 제가 다 즐겁습니다. 한편, 예배 시간 장난꾸러기 친구들 생활 지도하는 것도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설교 중에 유치부실을 돌아다니는 게 심해져서 제 무릎에 가만히 앉혀두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제 무릎이 소파가 된 줄 알고 앉아서 가슴팍을 지지대 삼아 조용히 기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괜히 아빠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중 몇몇 아이들이 저랑 친해졌다고 종종 집에서 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는 합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동심이 담긴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면 박장대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해가 지나면 또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각자의 모습으로 멋지게 성장하고 있을 거를 잘 압니다. 재밌게 시간을 보냈던 녀석들이 늠름하게 자란 모습을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반가움에 인사하면 못 알아보는 것도 즐겁습니다. '나도 예전에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면서 맡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친구들에게 한 마디, '종관아, 계진아. 이 재밌는 거 같이 해보자!'(절대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ㅎㅎㅎ)

이동근 집사 / 유치1부

(사)섬김과나눔 / 여전도회
생명사랑 이웃사랑

<생명사랑 이웃사랑> 명절음식 나눔행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소외된 주민에게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인 전4종 세트와 떡과 한과를 전달한 2023년 「생명사랑 이웃사랑」 명절음식 나눔행사는 (사)섬김과나눔, 주님의교회 여전도회가 주최하고 (사)섬김과나눔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공동으로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9월 21일에 송파구에서도 가장 어려운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마천1·2동과 신생 아파트 타운인 위례동 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결식우려어르신), 아동·청소년 양육가정, 탈북민 가정, 고립사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 400가정에 전달되었는데, 올해는 긴 연휴로 명절기간동안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이기에 더욱 의미가 컸다. 전달 받으신 어르신께서는 "만들기도 힘든데, 이렇게 따뜻한 방금 만든 전을 줘서 맛있게 먹었다. 매년 추석마다 잊지 않고 사랑 나눠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마천사회복지관

(사)섬김과나눔 / 여전도회
생명사랑 이웃사랑

섬김과 나눔 행사를 마치며

사단법인 섬김과나눔과 주님의교회 여전도회가 주최하는 2023년 [생명사랑 이웃사랑] 명절음식 나눔행사가 9월 21일 진행되었다. 추석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손수 만든 음식을 외롭고 어려운 주민들께 나누어 드림으로써 이분들의 정서적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 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음식은 전으로 도시락 형태의 팩에 담아 전달하기로 하였다. 한 팩당 4종류 (버섯 부추 전, 오징어 완자, 새우 동그랑 땡, 떡갈비)의 전을 각 5개씩 20개를 넣어야 했다. 목표치인 400팩 즉 적어도 8,000개 이상의 전을 만들어야 했다. 우리는 할 수 있을까? 하는 근심 걱정을 넘어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이겨내는 방법을 택했다. 선한 두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_ 고린도후서 7:10

약 65명의 여전도 회원들이 행사 당일 섬김과 나눔의 담당 이대혁 목사님의 기도로 이른 아침 6시부터 시작되어 10시까지 4개 팀 (야채전 반죽과 달걀 푼물 공급팀, 재료 담당팀, 전 부치는팀, 포장팀)으로 나뉘어 각자 주어진 주님의 선한 일에 일사불란하게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 전파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기름 냄새는 번제처럼 하늘로 올라갔고, 예수의 향기 되어 우리 몸에 스미는 듯했다. 뒷정리까지 마치자 여전도 담당이신 배윤환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큰절을 하셨는데 이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한 것이라고 여기며 박수로 화답했다. 연합 회장단의 분석/계획/조직력에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 연합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반죽 풀이에 도움을 주신 남선교회 회원님과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립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의 헌신이 빛을 발하길 소망한다. 끝으로 모든 과정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송성열 권사 / 여전도회연합회장

남선교회
족구대회

족구대회를 마치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통제되었던 긴 시간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전의 자유스럽고 활동적이었던 옛 모습을 찾아가는 데는 아직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만 만나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만남에서 벗어나 같이 땀을 흘리며 응원하는 경기장에서 만남을 통하여 보다 가까워지고 옛 모습을 빠르게 찾아가고자 족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두 번의 목회자와 성도들 간 족구경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좋은 경험을 살려서 보다 더 재미있고 많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지만 장소, 시간 등에서 많은 제약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5남 선교회(이승균 회장)가 주관하여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경기규칙을 만들고 선수를 선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여 선교회 회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 모습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9월 17일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교회 다목적관에서 시작된 경기는 많은 남·여 선교회 회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목회자 2팀, 선교회 2팀 모두 4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였고 승패를 떠나 경기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관중이나 뛰는 선수가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기 결과는 개인적인 경기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팀워크가 좋은 목회자 팀이 1, 2등을 하였고 반대로 개인적인 경기력은 좋지만 연습이 부족하여 팀워크가 부족한 선교회 팀이 3, 4등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행사를 통하여 갖게 된 좋은 경험과 준비물들을 잘 활용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여 정기적인 행사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명기** 안수집사 / 남선교회연합회장

교회사용설명서㉑

교회 출입하는 법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주님의교회는 정신학원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1995년 정신학원과 학원선교에 대한 뜻을 함께하고, 정신학원에 필요한 대강당을 지어 주말에 예배당으로 쓰기로 합의하면서 정신학원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 3월에 주님의교회가 정신학원 소강당으로 주일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1997년 8월에는 대강당 기공예배를 드렸고, 1998년 11월 대강당인 김마리아회관과 수련관인 김필례관이 준공되었습니다. 11월 10일 입당예배를 드리고, 기증서와 감사패를 정신학원에 증정하여, 이날부터 대강당은 공식적으로 정신학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정신여중고 대강당 건축 사업은 주님의교회 창립정신인 예배당 무소유 정신과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는 원칙이 결합하여 구체화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2002년 2월에는 중강당 증축공사에 착수했고, 2003년 2월 중강당이 완공되어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2013년 3월에는 다목적교육관 건축을 시작했으며, 그해 12월 완공하고 역시 정신학원에 기증했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체육관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에 숨은 뜻이 하나님의 인도로 주님의교회에 주어진 학원선교에 있음을 공동체 모두가 받아들여, 2011년 12월에 전면 개정한 주님의교회 <정관> 제3조 실천이념에 청소년 사역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님의교회 공동체는 주님의교회를 정신학원으로 이끄신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나라의 미래이자 교회의 미래인 정신학원을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가 청소년들의 교육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학원이라는 특수한 공간 안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예측하지 못한 불상사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2014년 1월 <학교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2014년 1월 3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서는 등 • 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은 전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출입자는 학교의 관리자에게 출입증을 발급받아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신학원에서는 한가족과 다름없는 주님의교회 교인들에 대한 배려로, 이 가이드를 엄밀하게 적용하지는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부인이 여러 학교에 무단으로, 또는 악의를 가지고 출입하여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교육청에서 이 지침의 엄격한 적용을 각급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11일부터는 정신학원에서도 교육시간에는 학교 출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은 사전 허가된 차량만 출입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9:00~오후 4:00까지는 이 지침에 따라, 교인의 경우 교문의 출입 관리자에게 출입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은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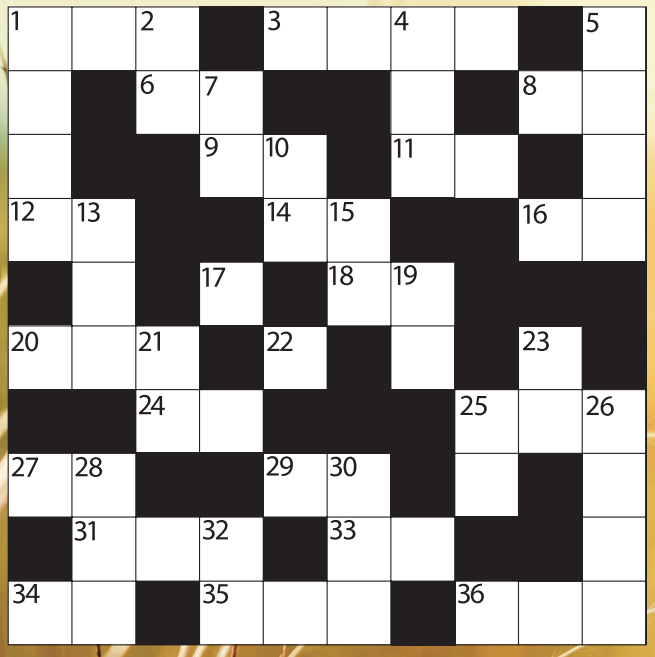
관리법과 주의사항

주님의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 따라 불편함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소년 사역,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귀한 청소년들에게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이런 작은 불편함은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바로 앞에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있는 대중교통의 요지이니, 되도록 차량을 갖고 오지 않는 것은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쉽게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함즐함울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욥기 편

이번 호에는 <욥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유지하는 욥의 일대기를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욥의 친구들과의 토론은 믿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도와줍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72호 에스더 편 정답

하	르	보	나	■	아	하	수	에	로
■	■	■	무	■	비	■	■	스	■
조	서	■	■	■	하	만	■	더	■
■	기	■	부	림	일	■	수	■	빅
■	관	원	■	■	■	바	산	다	다
■	■	■	준	마	■	다	■	■	나
아	■	다	■	■	가	■	헤	■	■
드	■	시	■	모	르	드	개	■	세
마	르	스	나	■	가	■	■	■	레
다	■	■	■	와	스	디	■	기	스

가로 힌트

1. 람 족속 부스 사람.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렸으며, 가장 나중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욥 32:2)
3. 하루살이목에 속하는 곤충을 두루 부르는 말. 성충의 수명이 짧으면 몇 시간에서 1~2주일 정도여서 수명이 짧은 동물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욥 4:19)
6. 어떤 사람의 다음 다음 세대. 자식의 자식을 말한다. (욥 42:16)
8. 작은 동물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가미. 줄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고 당기면 조여지도록 매듭을 둔다. (욥 18:9)
9. 정보나 경험을 저장하는 것. 컴퓨터에도 이것을 담당하는 장치가 있다. (욥 4:20)
11. 생물체에 발생하는 여러 병. 질환이라고도 한다. (욥 18:13)
12. 무덤이나 땅 밑 세계. 죽음의 상태를 뜻하는 말로, '음부'라고도 한다. (욥 7:9)
14. 억울하고 분한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욥 18:4)
16. 다른 사람을 샘내거나 미워함. 대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의 감정으로 나타난다. (욥 5: 2)
18.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는 일. 때로 육체적으로 하는 고된 일을 뜻하기도 한다. (욥 7:1)
20. 욥의 첫째 딸. 욥이 여러 시련을 겪은 후 다시 얻은 장녀의 이름이다. (욥 42:14)
24. 지금 이 순간.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을 말하기도 한다. (욥 5:3)
25. 수리과에 속하는 조류. 머리 위 정수리에 깃털이 없어 '대머리수리'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욥 9:26)
27. 높은 나무나 풀이 없는 광야. 성경에서는 대개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넓은 들판을 의미했다. (욥 39:4)
29. 사람이 기거하는 곳. 물건을 두거나 특별한 일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욥 7:10)
31. 욥의 친구 소발의 고향. 아라비아의 북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욥 2:11)
33. 황색을 띠는 원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상징하는 물질로 흔히 사용된다. (욥 18:15)
34.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귀한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존귀의 대상이며, 또한 하나님이 상급으로 존귀를 내리기도 한다. (욥 13:11)
35. 먹고 마시는 것. 특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두루 부르는 명칭이다. (욥 6:7)
36. 곡식의 이삭을 묶은 것. 곡식 이삭을 묶은 것을 세는 단위이기도 하다. (욥 5:26)

세로 힌트

1. 욥의 친구. 데만 사람으로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욥 42:7)
2. 여러 세대에 걸친 어떤 사람의 자손. '자손'이라고도 한다. (욥 5:25)
4. 동물의 피부. 비늘이나 털이 붙어있는 거죽을 뜻한다. (욥 41:23)
5. 돌을 쌓아 놓은 것. 바위가 무너져 돌이 저절로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욥 8:17)
7. 자신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유퀴즈온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자나 참가자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욥 2:9)
10. 분하고 답답함.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하여 야단을 맞았을 때 이런 기분이 든다. (욥 19:6)
13. 줄로 고리를 만들고 매듭을 두어 당기면 조이게 만든 것. 주로 짐승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만든다. (욥 18:8)
15. 몹시 노한 상태나 감정.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는 상태를 말한다. (욥 36:13)
17. 우스 땅에 살았던 인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으며, 사탄이 마련한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지 않아 더 큰 복을 받았다. (욥 1:1)
19. 동쪽 지방. 욥은 이 지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로 기록되었다. (욥 1:3)
21. 주로 집의 앞쪽에 두는 넓고 평평한 지대. 농가에서는 이곳에서 타작을 하거나 고추를 말린다. (욥 39:12)
22. 소과에 속하는 동물. 주로 털과 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으로 기르며, 떼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시련이 끝난 욥에게 이 동물 만 사천 마리를 주셨다. (욥 42:12)
23. 해의 수. 몇 년이 되었는지 헤아리는 것을 말한다. (욥 15:20)
25. 독이 있는 뱀. 사악한 성품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욥 20:14)
26. 바다에 산다고 생각되던 거대한 괴물. 욥기에서는 용과 같이 두꺼운 비늘로 덮여 있고 입에서 불을 뿜는 상상의 괴물로 묘사하고 있다. (욥 41:19)
28. 야생 나귀. 가축이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채 광야에서 사는 나귀를 말한다. (욥 24:5)
30. 소유하고 있는 물건.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물건들을 말한다. (욥 1:3)
32.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주로 행동과 대비되어 속으로 갖고 있는 태도나 의지를 말하기도 한다. (욥 1:5)

교회소식

5년 만에 돌아온 소통의 시간

전교인 설문조사 10월 22~31일 예정

미등록 교인을 포함한 전교인의 현황을 조사하고 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교인 설문조사가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전교인 설문조사는 주님의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2018년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되었던 전교인 설문조사에 이어 5년 만에 실시되는 설문조사이다. 2018년 당시 3주에 걸쳐 인쇄본으로 된 설문지 4,217부가 배포되었고, 그중 2,218부가 회수되어 52.6%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전교인 수 대비 25.4%의 응답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함즐함울 400호, 2018. 9. 30호 참조) 이번 설문조사도 5년전과 다름없이 교회 내외부 환경의 변화와 교인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교회 발전을 위한 여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2018년과 달리 모바일(스마트폰)으로 답하도록 진행되며,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교인을 위해 지하1층 다목적실에 PC와 도우미를 배치하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설문 문항은 2018년 설문조사와 같이 교인 기본사항, 교회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 교회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2018년 당시 106문항이었던 문항의 수를 모바일 설문 응답자의 편의성을 고려, 약 30%를 줄였으며, 2018년 설문 문항과 연계성을 살리되, 향후 모바일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설문 문항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조정하고 재배치했다. 전교인 설문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위원회 산하 미래포럼의 김낙균 장로는 "전체 교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전교인 설문조사는 대형교회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소통의 기회입니다. 미등록 교인을 비롯한 주님의교회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함즐함울

함즐함울 400호

중보기도부
2023 수련회

우리는 충성된 중보기도자입니다

2023년 중보기도부 수련회가 10월 5일(목) 주님의교회 중예배실에서 강동진 목사님(보나콤 공동체 대표) 설교로 중보기도부 기도 사역자들이 함께하여 말씀을 듣고 팀별 나눔을 나누고 함께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세태 가운데 중보기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2023년 중보기도자 양육과정은 11월 중에 6주 과정으로 개설 하여 중보기도의 사명을 함께할 성도님들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 예정이며 중보기도 릴레이 시간을 엄수하며 충성된 중보기도자의 소임을 잃지 않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신형섭 장로

송파교육복지센터는 송파구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학생과 활동하며 응원할 멘토 10명을 찾습니다.

1. 접수기간 : 2023.10.22.(일) 18:00 까지
2. 활동내용 : 아동 및 청소년 멘토링
3. 장소 : 센터 및 학교 등
4. 대상 : 사전교육 이수 및 6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한 분
-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 주실 분
- 대면 활동이 가능한 분
- 오후 1~6시 사이에 주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이 가능한 분
- 학생, 담당자와 소통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아가고자 하는 분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6. 절차 : 신청서 접수 → 개별 안내 → 사전교육 → 멘티연결 → 담당자와 협의 → 활동
7. 문의 : 박인미 사회복지사(☎070-8833-1853/ 010-6710-7982)

교회일정

10/15(주일)	정기당회
10/17(화)	평남노회 정기노회(부산)
10/20(금)	2024년 정책당회

알립니다

1. 학교 출입자 인적사항 확인 시행안내 (교육청 지시사항)

9/11(월)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출입 시 교인들도 출입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평일 오전 9:00 ~ 오후 4:00까지 시행

※ 차량출입 : 사전 허가된 차량만 출입가능

2. 3부(샬롬)찬양대 지휘자 초빙

- **자격** : 무흠 세례교인, 지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협연에 필요한 작곡과 편곡이 가능하며 음악적 전문성이 있는 분, 영성과 인격적 리더십을 갖춘 분
- **서류** : 이력/경력서, 자기소개서(사진 첨부), 주민등록등본, 본인 지휘 영상 파일 또는 링크
- **기한** : 10/21(토)까지
- **제출** : sineldh@hanmail.net(이대혁 목사)
- **문의** : 이승균 안수집사(010.2910.9140)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즐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즐함울' 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